

# 사찰 수행환경 '몸살'

**마태사 채석장 발파에 소음 공해·법당균열**  
**약사사 일주문 안 주택허가 반발 규탄 집회**  
**법흥사 숙박·음식점 들어서 성지 인상 흐려**

사찰이 인근 광산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진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사찰 경내지나 인근에 무분별한 건축·도로허가가 남발돼 사찰 생태·수행환경 보존에 이상이 걸렸다면, 사찰이 폐사위기에 놓일 정도로 피해상황이 심각한 곳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2리에 소재한 마태사(주지 재화), 사찰인근(약 1km)의 7개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진동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찰수행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봉선사 말사인 마태사가 참진된 것은 39년전, 창건후 4년뒤에 채석장이 하나 돌직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채석장들이 다이너마이트와 중장비를 동원해 채석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개천 등의 환경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마태사는 지난 10년간 정산적·신체적(피부병 등) 피해를 제외하고도 삼성각 및 법당 균열로 인한 개·보수 비용 13억5천만원, 묘사채 보수비용 1억2천만원, 신도격감 및 행사(수련회 등) 취소로 인한 피해액 1억5천만원 등 총 16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태사는 5일 7개 채석장 대표들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현장을 함께 둘러봤으나, 업주들의 준비소홀로 협상에 실패했다.

마태사 주지 재화스님은 "몇년전부터 사찰행사를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

로 종교활동에 지장을 받아 피해보상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쌍용 자원개발(주)의 석회석 광산 채석발파에 따른 삼화사(주지 원행)의 소음·진동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조계종총무원, 강원도청 등 7개기관 합동연석회의가 5일 동해시 여성회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험발파 조건방법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시험발파를 15~25일 사이에 3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총북 육천군이 일주문내에 일주문택 건축허가를 내어줘 말발이 되고 있는 여태종 본산 약사사(주지 경안)는 6일 군수 면담에서 '허가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며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 옥천역 앞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5대 적멸보궁중의 한 곳인 강원도 영월 법흥사와 제주 수정사지 인근에는 요식업소와 관동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포천=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마태사 주지 재화스님이 채석장 발파로 인해 석탑기단부의 갈라진 틈(3~4m)을 가리고 있다.

## 종단소식

**조계종**  
**부산·경남 주지 연수**  
 교육원(원장 일면)은 부산·경남 주지연수회를 12~13일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또 17일 오전 10시 직지사서 전국강원학인연합회와 함께 전강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02)732-4923

**해탈절 불사 봉행**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심인당과 해외 각 심인당은 15일 오전 10시 해탈절 불사를 일제히 봉행한다.

**조동종**  
**부산교구 총무원 개원**  
 총무원장 학봉스님 등 종단 간부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6월 28일 해운대구 대연3동 무량사에서 부산교구총무원 개원식 및 자선(덕정) 총무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무량사 무량수전 불보살도 함께 봉행됐다.

**대고종**  
**제24기 행자 소양시험**  
 제24기 행자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가 오는 8월 11일 서울 종무처에서 개최된다. 소양시험은 불교기초교리와 초발심자경문 습득정도를 알아보는 필기시험과 반야심경, 천수경, 조석예불, 승가의 화합관, 종단관, 불교관 등 행자의 기본 습의정도를 알아보는 면접시험으로 나눠 치른다. 이번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에 한해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주동안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실관되는 합동독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법원사 여름불교학교**  
 신촌 법원사(주지 인공)는 28~30일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를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찬불가배우기, 반야심경 사경, 선재놀이, 기초교리,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392-3007

**선각종**  
**사무총장 진천스님 임명**  
 종정 정엄스님은 6월 30일 광주주변회관 녹야원에서 총무원장 정엄스님, 천봉선원장 도룡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회장,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간부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사무총장에 역할담 주지 진천스님(사진 왼쪽), 사회복지원장에 천봉사 주지 지훈스님(사진 오른쪽), 비구니선원장에 자성사 주지 명지스님, 정책실장에 조희일 가야불교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진각종**  
**금강원 종조종영 바뀐다**  
 종조 회당대중사 탄생 1백주년을 앞두고 금강원 성역화불사의 일환으로 6월 27일 울릉도 금강원에서 성초 통리원장 일장 교육원장 등 종단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조 종영을 새롭게 봉안했다. 성초통리원장 등 종단 스승들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 6·25 학살양민 천도재

**부산 영도 사암련**  
 1950년 6.25전쟁발발과 동시에 좌악이라는 사상의 울기미에 묶여 억울하게 국군에 학살당한 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선명골짜기(현재 미니공원)에 매장당한 양민 수백명에 대한 천도재가 부산영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각 영도·미룡사 주지)와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 의해 추진된다.

영도불교사암연합회 소속 36개 사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찰별로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영가천도를 위한 지장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이 기도회는 7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확정된 보도연맹원 천도제일(8월9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은 최근 펴낸 자료집 '부산지역 학살의 진상'에서 '1950년 7월부터 9월사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산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범 4천8백여명과 좌익계열 보도연맹에 가입해 있던 5천여명이 집단학살돼 매장된 사실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수덕사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요구**  
 충남도는 대통령비서실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최근 충남대에서 주최한 '대전·충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해안지역 내포(內浦)문화권(아산, 예산,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보령)을 국가차원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내포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충남도는 2002년부터 국비 2조여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문화유적조사 및 발굴, 관광단지 조성,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곳은 백제시대 불교가 들어온 관문으로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 불교유적이 많다.

김재경 기자

## "사기피해 연변조선족 돕자"

**부산자비원 희망촌 건립**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이 조선족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3일 부산불교자비원은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 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촌을 건립하고 있는 이윤식씨를 초청해 부산역 철도호텔에서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부산불교자비원, 작은 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 종교단체 대표와 회원 30여명은 앞으로 희망촌 후원을 결성해 조선족 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건립중인 사회복지시설 연변 희망촌은 100세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세대분 공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명선원 삼매체험 수련원**  
 참선 생활운동을 펼치는 한라산 원명선원(회주 대표스님)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 21일부터 25일 까지 두차례에 걸쳐 '삼매체험 수련원'을 갖는다. (064)755-3322 김재경 기자



◇홍릉사 주지 광현스님은 조계종 승가전문 교육원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 포천 홍릉사 통일원찰 떠올라

**1만2천5백 지장불 봉안**  
**중부전선 군인불자화 추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령리 민통선 입구 '철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백운산 홍릉사(주지 광현)가 신라시대 창건이후 1300여년만에 통일 원찰로 거듭나고 있다.

18만평의 사찰 부지를 가진 홍릉사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 말사인 공할로서 현재 사찰 주변의 축대와 종각, 일주문 등을 정비하고 1만2500불을 모신 대웅전과 석조지장보살상을 완공하고 앞으로 관음전, 나한전, 지장전, 삼성각 등을 추가로 건립해 통일 중심도량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28 서울수복이전에 노동당사와 김일성의 별장(산정호수) 등이 있던 곳으로 한국전쟁 와중에 8만명이 사망한 지역에 위치한 홍릉사는 금강산의 유일한 육로 입구라는 점에 착안해 1만 2000 지장보살상과 어울리게 죽은 원혼을 천도하고자 500좌의 지장보살을 합쳐 1만2500불(현재 6500불)을 조성하게 되었다.

5군단 관할내의 전부대에서 법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현스님은 중부전선 전군인의 불자화를 발원하면서, 홍릉사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찾는 통일원찰로 가꾸고 있다.

포천=김재경 기자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 초기 불교 교단 생활

부처님 제세사와 일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증가 및 유족제 제도, 안거와 모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져 지어진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초기 불교 교단 생활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만트라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분석시키고 있다.

밀교학개론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도·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료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 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